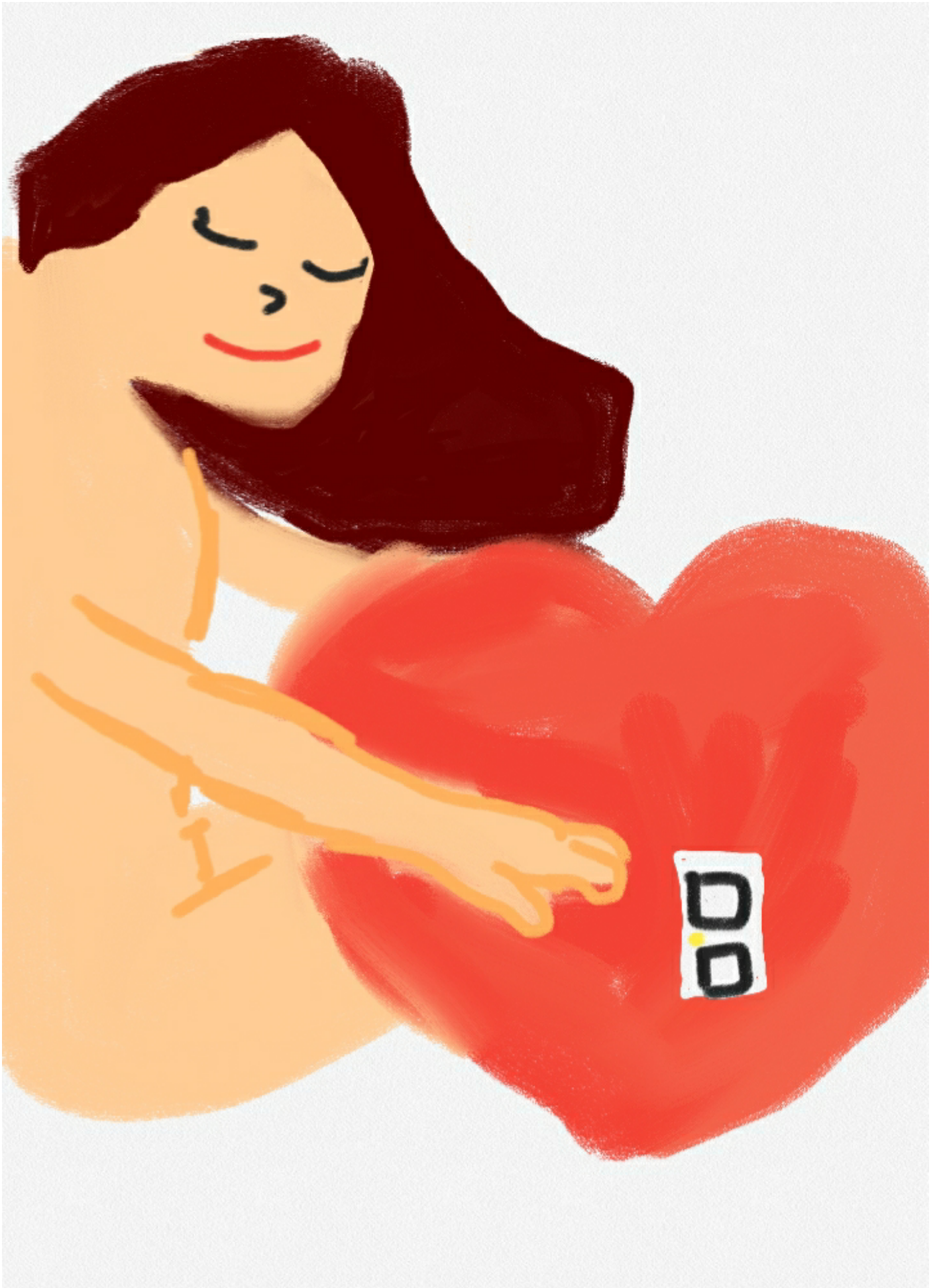


코로나 사태를 견뎌 주시는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죠?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더 큰

병이 생겼어요.

바로 마음의 병이에요.

사람들은 귀로 통해 칭찬과 사랑을 들어요.

이 말들은 마음의 문으로 가죠.

마음의 문 속엔 마음의 세상이 있어요.

이 좋은 말들은 마음을 행복하게 해 주는 에너지예요.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세상과 단절 되고 말았어요.새월이 흐르면 사람들은 마음의 벽을 쌓기 시작해요.

외부와 단절하면 안전해 질거라는 불안감 때문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담을 거의 쌓았어요.

이제 문으로 들어가는 칭찬이 점점 끊겨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점점.

결국.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의 문은 서서히 닫혀요.

마지막에는 닫혀 버리죠.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만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고 연결이 있는 것은 아니예요.

마음이 단절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병도 있어요.

여러분, 밖에도 못 나가고, 돈도 못 벌어서 속상하죠? 그렇다고 마음에 베일을 덮어 버리고 빛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 라는 병에 걸린 거죠.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렇게 말해 주세요.

"마스크를 쓰면 얼굴의 반을 가려요.

하지만 마스크를 쓴다고 마음까지 가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을 허물면 이런 일도 없을 거라고요?

아니예요.

왜냐고요?마음의 문은 인내의 문이기도 해요.

너무 많은 칭찬을 받으면

인내가 떨어지고

참을성도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마음의 문은 사람마다 열려 있는 정도,크기, 모양 등 이 제각기 다르답니다.

노후에는 거의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기 때는 거의 열려 있죠.

자신감이 넘칠 때는 문이 활짝 펴져 있고,

커져요.

반면 자신감이 없을 때는 구겨지고 작아져요.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 버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 코로나

종식 될 때까지 힘 냅시다!